

제19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00년 1회 회의(일본 도야마현)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19년간 한국 1,282명, 일본 1,842명 합계 3,124명이 참가

1) 목적 : 한·일(호쿠리쿠) 지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확대

- 한국 동해안 4개지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 3개지역의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공유·공동가치창조 및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2) 일시 : '16. 8.26(일)~29(수), 3박 4일 * 본회의 : 8.27(월)

3) 장소 : 일본 후쿠이현 국제교류회관&그랜유어스호텔 후쿠이

4) 참석자 : 양국 정부대표(韓 산업부, 日 중부경제산업국)·기업 등 총 148명

- 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주나고야총영사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강원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한림해운 등 42명
- 일본측 :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현,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쿠AJEC, 일본무역진흥기구, 호쿠리쿠경제연구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니카화학, 미쓰이물산, 호쿠리쿠전력 등 106명

2. 주요 성과

□ (회의)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를 테마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산업진흥·지역 행복도·지역간 연계) 및 활용방안 논의'로 '경쟁에서 공존'의 시대로 가는데 기여

- (신 스테이지) 한일 간 정치문제 완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감소, 방문객 증가 등의 정세변화로 산업계 제휴·교류활성화, 북한 나진항·동북3성과의 물류확대
* 한일 지역간 무역·투자·인적교류의 극대화 실현(일본경제의 3%), 상호보완
- (행복도 랭킹) 행복도 랭킹으로 본 호쿠리쿠3현의 특징, 정책적 활용방안 논의
* 행복도 평가에서 후쿠이 1위, 이시카와 4위, 도야마 5위(교육·실업률·생활 등)
- (지역간 연계) 각 지역의 특색과 문제, 새로운 개발시책, 지역연계방안 등 논의
* 안경산업 협력, 미래형 자동차, 섬유안정성 시험, 글로벌 시장개척, 물류분야 연계

□ (투자유치) 대구 투자기업인 니카화학(계면활성제)에서, 대구공장 증설에 200억 투자 발표

- 한국의 FTA활용, 신기술 개발, 우수 인재활용(기술자, 혁신), 마케팅

□ (상담회)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기업과의 비즈니스 개별매칭, 안경산업간 교류 등으로 일본시장 개척에 기여

- KOTRA 대일시장진출 우수기업(40사) 홍보, 대구시-사바에서 안경산업 교류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는 약 2.4배가 성장
'00년 543억엔 → '17년 1,310억엔(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3개 현)

* 한국 디자인·브랜드- 일본 생산위탁 협업(10만불 계약체결)

-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추진(11/7, 서울)

1) 환동해권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간 교류 확대 공감대 형성(경쟁에서 공존의 관계 구축에 기여)

- 후쿠이현 지사 예방, 경제교류회의,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기업·연구시설 견학 등을 통해 호쿠리쿠 관계기관·기업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후쿠이현) 후쿠이현 고향 납세제도 도입

- 북한 등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속에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한일 지역간 연계방안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긴밀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한일 지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의 극대화 실현(일본경제의 3% 수준), 상호 보완(빅데이터·AI·정보보안 등 4차산업혁명, 인재매칭)에 대한 인식공유

2) 한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

-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를 테마로 하여 세미나 형식의 전체회의를 개최

- (산업정책) 지역 경제·산업현황과 지역 활성화 정책

* 외국인 인재 활용, 신간선 개통 효과 등

- (행복도 랭킹) 행복도 랭킹으로 본 호쿠리쿠3현의 특징, 정책적 활용방안 논의

* 행복도 평가에서 후쿠이 1위, 이시카와 4위, 도야마 5위(교육·실업률·생활등)

-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3세대 동거, 지역 활성화, 산업·기업·직장확보, 교육, 인구문제, 여성활약), 인생 100세 시대의 대처(100세 시대 대응, 정년제도, 고령자 직장환경 정비, 행정의 역할)

- (지역간 연계) 혁신·글로벌을 키워드로 각 지역의 특색·개발시책 등을 공유
 - * 안경산업 협력, 대구 미래형 자동차 도시건설, 섬유안정성 시험, 한일 기업 문화의 인식 조율과 글로벌 시장개척, 물류분야의 지역연계 협의

3) 대구 투자기업인 니카화학(계면활성제), 대구공장 증설에 300억원 투자 유치

- 한국의 FTA활용, 신기술 개발, 우수 인재활용(기술자, 혁신), 마케팅

4)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기업과의 비즈니스 개별매칭, 안경산업 간 교류 등으로 일본시장 개척에 기여

- 한일 기업간 교류 촉진을 위해 KOTRA 대일시장진출 우수기업(40사) 홍보, 대구시-사바에시의 안경산업 관계기업 교류·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모색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는 약 2.4배가 성장
'00년 543억엔 → '17년 1,310억엔(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3개현)

- * 한국 디자인·브랜드- 일본 생산위탁 협업(10만불 계약체결)

- 호쿠리쿠지역 기업 초청, 한국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추진(11/7, 서울)

3. 종합평가

□ 한일 간 정치문제 완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감소, 방문객 증가 등의 정세변화로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산업계 제휴·교류활성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음

- (한일 협력방향) 산업계 제휴·교류활성화, 북한 나진항·동북3성과의 물류 확대 등

- (안경산업 협업) 선진국 고령화 가속·개발도상국 IT제품 사용증가로 수요증가세, 한일 안경산업의 강점을 살려 협업 추진

- * 세계규모 : '14년 29억개→'22년 38억개로 연평균 7%성장

- * 강점분야 : (한국) 디자인, 신소재, 브랜딩 (일본) 기술력, 품질, 전문성

□ 특히 일본내 '행복도 순위' 상위에 있는 호쿠리쿠 지역의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정책활용에 큰 시사점을 제시

- 지자체의 행정을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 지난 19년간 총 3,124명(한국 1,282명, 일본 1,842명)에 이르는 지자체·경제단체·기업 관계자 등이 호쿠리쿠 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채널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가 약 2.4배 성장하는데 기여

- (교역규모) '00년 543억엔 → '17년 1,310억엔(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현)

* 2017년 호쿠리쿠 3현의 수출액 5,006억엔 중 국가·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1,253억엔(호쿠리쿠 3현 수출총액의 25%)이며 2위는 한국 889억엔(동 17.8%), 3위 아메리카 539억엔(동 10.89%) 임

* 2017년 호쿠리쿠 3현의 수입액 4,351억엔 중 국가·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939억엔(호쿠리쿠 3현 수입총액의 21.6%)이며 2위는 러시아 520억엔(동 11.9%), 3위 호주 440억엔(동 10.1%), 4위 한국 421억엔(동 9.7%)임

- (대한투자) 호쿠리쿠(北陸) 기업의 2017년까지 대한투자 건수는 총 42건으로 호쿠리쿠 지역의 해외진출건수 (1,296건)의 3.2%를 차지

□ 호쿠리쿠 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양국의 인적·물적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파트너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함

- (호쿠리쿠 특색) 일본 경제 전체에서 3% 전후를 차지하며, 부품 등 중간재의 제조·공급능력이 높고 가공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많이 집적해 있는 지역

- 니카화학(대구투자기업·혁신연구시설), 가토키츠베(글로벌 지역 특산품), 세이렌(연구개발센터), 후쿠이현 공업기술센터(지역 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한국 대표단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

4. 향후 후속조치 · 검토 사항

□ 2019년 차기 회의(강원)는 제20회를 기념하는 회의로서, 지자체·경제단체·기업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편성

- 2019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 개최

* 동북아 지역 개발을 위한 4개국(한, 중, 러, 몽골) 경제부처 차관협의체

* GTI회원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50여개국 참가

- 한일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미나+상담회 프로그램 편성

* 호쿠리쿠 셰어톱 100대 기업과의 지속적인 매칭, 교류 추진

*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학, 요업·유리, 플라스틱, 기타

□ 권역별 우수기업 선정·홍보

- 동해권 우수기업 100 선정·공동 홍보

<호쿠리쿠(北陸) 셰어 톱 150 선정기준>

선정 포인트 : 「기술성」 「계속성」 「지역성」

○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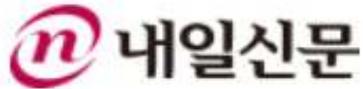
○ 장래에도 수요가 예측되며, 향후에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제품

<참고1> 한·일(北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발표내용

기관·기업명	제언 내용
(전체회의)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방안 논의 - 한일 간 정치문제 완화, 북한핵·미사일 위협 감소, 방문객 증가 등 정세변화로 산업계 제휴·교류활성화, 북한·동북3성과의 물류확대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경제협력 방안 - 투자협력, 한국의 FTA 네트워크, 인적교류 확대, 지역간 교류확대
한일경제협회	한일 지역간 잠재력의 극대화 방안 제안 - 무역·투자·인적교류의 극대화 실현(일본경제의 3%), 상호보완(빅데이터·AI·정보보안 등 4차산업혁명, 인재매칭 등)
한림해운(주)	한일 간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복합물류협력 제안 - 북한 나진항 이용과 중국 단둥항을 통한 한중일 복합운송 협력 - 한일 RSR사업(rail·sea·rail 연계)의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
중부경제산업국	호쿠리쿠 지역 경제·산업현황과 지역활성화 정책 소개 - 일본 전국의 3%경제, 3현의 산업구조(의약, 금속제품/ 전자부품, 기계/ 섬유, 화학), 외국인재 활용, 신간선 개통효과 등
호쿠리쿠경제연합회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한일 협력에 대해 -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새로운 스테이지(북한변화, 정치관계 개선, 관광객 증가, 한국청년인재 채용), 행복도 상위, 신간선 성공사례
니카화학	혁신과 글로벌 전략에 의한 지역 간 연계 소개 - 한국(대구) 현지법인의 성장요인과 향후과제, FTA·인재활용 등
(행복도)	지자체 중심으로 행복도·삶의 질 향상의 정책적 활용 논의
대구광역시	소소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대구 청년들! 시책 소개 - “YOLO : You Only Live Once”, “소확행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시사하는 청년 행복의 의미, 청년 스스로 정책 제안하고 사회문제해결에 참여, 다양한 활동·실전경험 통해 청년행복 발견
울산광역시	울산의 행복도 수준과 정책 시사점 소개 - 울산 행복도 지표수준(경제·일자리, 거주환경, 문화예술, 건강안전) 행복도 지표의 정책시사점(주민행복도 제고, 지역별 수준파악, 정책판단기준)
강원발전연구원	행복도 순위의 의미를 소개 - 행복도 지표의 의미, 행복도 지표를 통해 본 강원도 행복도, 강원도 행복도 향상방안·지표개발(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 가이드)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행복지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소개 - 지역의 행복도 측정지표개발 및 정책적 활용의 필요성, 지방행정의 역할 - 지자체의 행정을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후쿠이현	「행복도 일본 최고」 후쿠이의 모습을 소개 - 행복도 랭킹으로 보는 후쿠이현의 모습, 높은 행복도를 지탱하는 후쿠이의 기반(섬유·안경 등 고용안정, 여성활약), 향후 액션
호쿠리쿠경제연구소	호쿠리쿠 경제환경과 생활로 본 현황 및 향후 동향 소개 - 호쿠리쿠 신칸센 개업 3년 경과(가나자와까지 개업, 츠루가와 오사카까지 연장), 호쿠리쿠의 경제환경, 호쿠리쿠 거주자의 생활, 호쿠리쿠 산업계의 향후 동향
(주)일본정책투자은행	호쿠리쿠 지역의 다양한 업무방법을 촉진하는 제도 만들기 현황과 향후 동향 - 호쿠리쿠 여성의 업무영역 확대, 업무방법의 다양화(가사·육아)
일본유니시스(주)	전국 47도도부현 행복도 랭킹 2018, 인접 지역이 하나가 되어 실현하는 건강장수사회로 보는 현황과 향후 동향 - 지자체 과제공유·협력으로 건강장수사회 실현, 광역 지자체 연계 - 행복도 : 1위 후쿠이, 2위 도쿄, 3위 나가노, 4위 이시카와, 5위 도야마
(지역연계)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방안
대구광역시	대구 산업의 혁신(섬유·패션→ICT기반 친환경 첨단도시), - 미래형 자동차 육성(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엑스포), 물·의료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섬유안전성 시험·품질관리 위한 기술교류사례 - 일본 보켄사와의 섬유시험 인증 제휴, 기능성·친환경섬유개발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안경테산업을 대구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 진흥원을 설립 - 한일 안경산업 강점을 협업, 전문디자이너 양성·합작브랜드 추진·소재개발 및 기술이전을 제안 - 강점분야 : (한국)디자인·신소재·브랜딩 (일본)기술력·품질·전문성
니카코리아	유기불소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니카코리아 - 강점분야 : 비즈니스 기획, 창의적 인재, FTA 강점, IT문화
하그·오자와	한국 안경기업 발전에 공헌하는 하그 오자와 - '10년 한국법인설립,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학원 만들기, 신뢰확보
J&K로지스틱스(주)	글로벌 연계에 의한 호쿠리쿠 산업의 효율화와 물류산업 거점화 - 중국 일대일로와의 물류 연결, 부산항 경유 물류개선, 동아시아연계



한일경제인, 지역 간 연계 방안 논의

한일경제협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 경제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9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27일 일본 후쿠이현 후쿠이시에서 개최된다.

호쿠리쿠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3% 전후를 차지하며, 부품 등 중간재 제조·공급능력이 높고 가공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많이 집적해 있는 지역이다.

24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양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공동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파트너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회의 주관기관인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호쿠리쿠(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3현) 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를 테마로 ‘행복도 순위’ ‘지역간 연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한다.

전체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역산업정책 발표와 한일 지역 간 잠재력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한림해운(주)에서 RSR사업(rail·sea·rail 연계) 등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한중일 복합물류협력에 대해, 일본의 니카화학에서 한국(대구) 현지법인의 성장요인, FTA 및 인재활용 등 혁신과 글로벌 전략에 의한 지역 간 연계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현(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션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복도 순위의 의미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행복도 순위로 본 호쿠리쿠 3현의 특징은 3현 모두 교육·고용·생활환경 등의 지표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아 후쿠이 1위, 이시카와 4위, 도야마 5위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세션2에서는 ‘혁신과 글로벌 연계’를 주제로 각 지역의 특색·개발시책 등을 공유하고, IT

제품 사용증가로 인한 안경산업 협력·고부가가치의 섬유제품개발·미래형 자동차·글로벌 시장개척·물류분야의 지역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정부대표),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민간대표)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한림해운 등 총 42명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토미요시 켄이치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장 (정부대표), 규와 스스무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회장 (민간대표)을 비롯해 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호쿠리쿠산업활성화센터 호쿠리쿠전력 등 총 106명이 참가한다.

2018-08-24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北國新聞

北陸、韓国の経済
連携促進訴える

福井で交流会議

北陸三県と韓国の企業ト
ップや行政関係者らが両国
経済の現状を話し合い連携
を議論する「北陸（日本）
・韓国経済交流会議」が27
日、福井市で開かれた。北
陸経済連合会の久和進会長

（北陸電力会長）は「朝鮮
半島の緊張緩和などを受
け、日韓は新ステージと言
える状況だ」と強調し、民
間レベルの経済連携の促進
を訴えた。

会議は2000年から始
まり、今回で19回目。日本
側約100人、韓国側約40
人が参加した。

韓国側は韓国の文在寅大

統領が創設を提唱した日本
を含む北東アジア6カ国と
米国による「東アジア鉄道
共同体」構想について言及。
日朝関係が正常化すれば、
北陸の港から釜山を経て陸
路で欧州まで物資を運ぶ物
流ルートが開ける可能性が
あると指摘した。
次回は韓国で開催する予
定。

北日本新聞

韓国と経済連携促進

北経連など福井で交流会議

北陸3県と韓国の企業トップや行政関係者らが両国経済の現状を話し合う「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

27日、福井市であり、経済連携を強めていくことを確認し

た。北陸経済連合会と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が開いた。

同連合会の久和進会長(北陸電力会長)は「朝鮮半島の

緊張緩和などを受け、日韓は新ステージと言える状況だ」と強調し、民間レベルの経済連携の促進を訴えた。

今回は「日韓新ステージにおける地域間連携」がテーマ。

韓国側は韓国の文在寅大統領が創設を提唱した日本を含む北東アジア6カ国と米国による「東アジア鉄道共同体」構想について言及。日朝関係が

第19回 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



正常化すれば、北陸の港から釜山を経て陸路で欧州まで物

福井市で開かれた「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27日

資を運ぶ物流ルートが開け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幸福度ランキングなどをテーマにした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があり、北陸経済研究所(富山市)の藤沢和弘調査研究部長らが参加した。

会議は2000年から始まり、今回で19回目。日本側約100人、韓国側約40人が参加した。次回は韓国で開催する予定。

2018. 8. 27開催
第19回北陸(日本)韓国
経済交流会議
新聞掲載記事一覧

「競争から共存へ」

北陸、韓国企業 福井で交流会議

強み生かす連携討論

北陸3県と韓国の日本海側とが重要だ」といった意見が地域の産官学関係者らが一堂に会する「第19回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27日、福井市の県国際交流会館で開かれた。北陸と韓国の企業の連携強化に向けた方策などを議論し、「今後は競い合うのではなく、共存共栄の時代に

なる。互いの強みを生かすこ

北陸と韓国の企業の連携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交流会議＝27日、福井市の県国際交流会館

福井新聞



地域間連携をテーマに議論。日本側は日華化学(福井市)

のグループ会社ニッカコリアの金敬栽社長ら、韓国側は

眼鏡産業の振興に取り組む韓国眼光学産業振興院の金元久院長らが登壇した。

ニッカコリアの金社長は、日本人と韓国人は価値観が異なることし、「相互理解を深めることで連携が円滑に進む」と説明。同振興院の金院長は、両国の眼鏡産業について「日本は技術力が高く、韓国はデザイン面で優れている。強みを生かし合えば、互いに発展できる」と述べた。

幸福度ランキングの高い北陸の特徴などをテーマにしたセッションや、日華化学の江守康昌社長らの講演、商談会もあった。28日は県内企業などの視察がある。

(吉川良治)

北陸3県と韓国 新たな連携探る

福井で経済交流会議



北陸三県と韓国日本海側地域の連携の道を探る参加者たち
＝福井市の県国際交流会館で

北陸三県と韓国の日本海側地域の交流拡大を目指す第十九回北陸・韓国経済交流会議が二十七日、福井市の県国際交流会館で開かれた。北朝鮮を巡る緊張緩和の動きを受けて「日韓新ステージにおける地域間連携」をテーマに、両地域の企業経営者や行政関係者ら約百六十人が、新たな連携

の道を探った。

主催者の一つで事務局を務める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の久和進会長は「南北首脳会談、米朝首脳会談が



北陸・韓国経済交流会議 北陸経済連合会と北陸AJECが韓日経済協会と連携して開催している。1999年に当時の小渕恵三首相と金大中大統領が合意した「日韓経済アシエンタ21」を受けて2000年から始まった。福井、石川、富山の三県と韓国の日本海側4地域（江原道、慶尚北道、大邱（テグ）広域市、蔚山（ウルサン）広域市）が毎年、日韓で交互に会場になっている。

あるなど、今年は将来に向けて明るい兆しが見えてきた年」とあいさつ。日韓経済交流のさらなる拡大に期待を込めた。

韓日経済協会の徐錫崇副会長と、一九七一年（昭和四十六）年から韓国・大邱広域市に工場を置く日華化学（福井市）の江守康昌社長らが講演した。

徐副会長は「近年、北陸では若手の人材が不足する一方で、韓国では就職難が続いている」と指摘した上で、「北陸の企業が優秀な韓国の若者を採用するなど、真に連携するべき時代が来ている」と強調。江守社長は「日韓の企業連携は新たな局面に来ている。韓国のFTA（自由貿易協定）を活用し、両国の技術者が協力して技術革新を進めるなど、新たな展開がある」と話した。

「幸福度ランキングの意味するもの」「日韓新ステージにおける地域間連携」と題した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もあり、両国の企業経営者や研究者らが意見交換した。（藤共生）